

제 11회 한일미래포럼 보고서

이재영

요즘 한일관계과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고,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공급을 중단하기 이르렀다. 그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불매운동에 나섰다. 'NO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전국에 유행하면서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럴 때일수록 싸움보다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옳고 그름을 떠나 일본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얘기를 하고 싶어 이번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 사실 내가 일본어를 아예 못하고 영어도 잘 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화에 있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통역사분들이 계셔서 안심이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 내가 맡은 주제는 이번 한일관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이다. 이 주제가 굉장히 지금 상황에 민감하고 조심스럽지만 꼭 얘기를 해보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으로 자주 접했고 개인적으로 일본음식을 좋아해서 나에게는 긍정적인 나라였다. 고등학교 때는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하여 일본어의 기초를 배웠고, 일본어 선생님께서 일본 문화에 대해 설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더욱더 일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었다.

토론인원은 우리나라 학생은 5명 일본인 학생은 2명 통역사 1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토론진행은 처음에는 각자의 의견이나 궁금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제가 일본인 학생에게 강제징용의 역사를 아냐고 물었는데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일본학생은 한일 청구권협정(1965), 이번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 대답을 듣고 되게 당황하였다. 보통 한국인들의 인식은 일본사람들이 지식이나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왔었다. 그래서 혹시 중, 고등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는가를 물었는데 전혀 배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제가 한국의 역사적 내용을 설명해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랑 달라서 혼란스럽지 않냐 물어보니까 지금 좀 혼란스럽고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이 더 신뢰가 간다고 대답하였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일본인들은 지식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본 역사 교과서 자체에 근대사에 대한 내용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이 이상의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교육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하기로 하였다.

먼저 '무엇이 문제였을까?'에 대해 토론을 해보았다. 그에 대한 토론의 결과는 2가지가 나왔다. 첫번째는 역사교육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의 문제였다. 먼저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이 없고, 사회과목만 존재하였다. 사회과목 내에서 역사를 함께 배우며, 세계사 내용은 일본과 관련 있는 내용만 배운다고 하였다. 고등 교육과정은 일본사와 세계사과목이 있는데 일본의 센터시험(일본의 수능시험)에는 이 중 하나만 골라 응시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중등 교육과정은 역사과목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이 시간에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해 배운다. 고등 교육과정에는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이 있다. 수능시험(한국의 센터시험)에서는 한국사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하면서, 사회과 과목을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았다.

먼저 양국 교육과정 모두 대학입학시험 위주라는 점에서 오로지 시험을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 역사 과목 자체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적은 경향을 띠는 것이다. 또한 교육내용의 문제점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근대 개화기 및 현대에 관련된 내용이 적고, 식민지배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중 특히 한국과 문제가 되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서술된 반면,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만 있을 뿐 조약 등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해결방안에는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가 나왔다. 먼저 일본교과서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설명되어 있는 근현대사 내용을 보충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서술을 추가하여야 한다. 특히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관한 객관적 서술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학생들에게 맡겨 주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일본 교육환경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벗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역사 문제에 관해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은 해방 이후의 한일관계에 대한 서술이 부족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미디어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다. 양국이 공감하는 문제점은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들이 많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의 답이 나오는 기사가 있다고 하면 양국의 기사는 대부분 찬성 혹은 반대로 쏠린다는 것이다. 미디어 개선점에서는 뉴스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기사를 내보내면 좋을 것 같다. 반대쪽 의견이 있는 기사도 같이 메인에 올려서 시민들이 더욱 객관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교육과 미디어 뿐아니라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모이면 그 나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또한 이 포럼과 같은 교류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사람들이 자주 만나 얘기를 하여 서로에 대한 오해도 없어지고 이것을 크게 보면 양국의 대립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3박4일의 토론을 마치고 아쉽기도 했고 흥분하기도 하였다. 일본인 친구들과 즐겁게 얘기를 더 못한다는 것이 아쉬웠고, 지금까지 내가 일본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흥분했다. 언제 이런 기회가 생겨 일본 학생들이랑 얘기를 할까 혼자 생각했다. 이렇게 토론을 하여 서로에 대해 깊이 알고 문제점을 해결할 시간을 가져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3박4일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고,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일본친구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할 걸', '사진도 더 많이 찍을걸' 하는 아쉬움이 깊게 남았다.

이번 포럼진행을 도와주신 분들과 통역사 분들께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고맙다. 덕분에 이 포럼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이 사소한 질문도 너무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했다. 나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이런 포럼과 같은 활동을 활성화 하여 한일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